

# 전염성 관절막염 (Infectious Synovitis)

## 원 송 대

1949년 미국서 부로일러 지대에 처음 발생되었으나 1954년에 병원균을 분리하여 Mycoplasma Synoviae임을 밝혀 전염성 관절막염이라 부르게 되었다.

관절은 관절막으로 쌓여있고 이 안에 활액(Synovial fluid)이 들어 있어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운활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활액은 모든 미생물의 자라기에 적합한 영양분을 갖고 있으므로 Mycoplasma Synoviae외에도 다른 세균이 잘 침입되어 관절염을 일으키기가 쉽게 되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관절염도 많은 피해를 주며 또한 살모넬라에 의한 관절염도 육성과점에 많이 볼 수 있다.

~~【려한】~~균은 일부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혈류를 따라 관절에 침투되는 것이다 Mycoplasma Synoviae는 종란을 통해서 감염되는 소위 난계대성 전염병의 하나이다.

주로 이 전염성 관절막염이 발생되는 곳은 부로일러 계사인데 보통 4주령부터 출하할 때쯤 되면 많은 수가 걸지 못하고 주저앉아 다른 건강한 놈들에게 짓밟히거나 찍혀서 결국 못먹어서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병으로 죽는 털은 전체수의 15%이나 이 병을, 다시 말해 이 병에 걸려 발육이 불량하고 체중이 표준미달되는 털이 75% 정도나 될 수 있으므로 부로일러 사업에 경제적 손실이 지대하게 될 것이다.

## 외부증상

Ms에 의한 전염성 관절염은 외부증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계사에 들어가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벼슬에 빙혈기가 있고 절름발이가 갑자기 늘고 유황색 설사를 한다.

이런 털은 걸지 못해 바닥을 가슴에 비벼서 수포가 생겨 터져 지저분하다.

포도상구균에 의한 관절염과 바이러스에 의한 건초염(tenosynovitis), Ms에 의한 관절막염과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으므로 실험실 진단법을 통해서 군의 분리 및 동정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 해부증상

관절을 조개보면 노란색의 농(고름)이 보이거나 어떤 경우는 이 농이 약간 굳어져 있기도 한다.

~~간파취강, 신장은 부어 있고 담즙색소로 젖이 주른색으로 물들어 있다.~~

~~신장의 장부는 약간 염증이 보여 고장내용을 주로 노란물로 차 있다.~~

~~신장은 퇴색되어 빨간 줄 무늬가 보인다.~~

## 예방 및 치료

Ms에 의한 전염성 관절염도 사육종 스트레스를 줄 때 일어나는 병이다.

즉 환경의 급변화(이동, 사료변화, 외부온도, 전종등)는 이 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난계대성 전염병이므로 위생적 부하장과 종계장의 병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치료약은 타이로신(Tylosin Phosphate)이 좋다.

그리고 크로로테트라사이클린(Chlortetracycline)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사료 톤당 100~200g을 5일간 투여한다.

이 병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